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에도 국내 LNG 수급 차질 없다”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전면 중단 준한 상황도 대비”

대체 도입·트레이드로 3~5년 대응 수급 안정 자신... 중단 여부 협의 국제 LNG값 급등 우려 ‘예의주시’ 하반기 전기·난방비 변수로 부상



1일(현지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산업단지에서 이란의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시스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수입국과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LN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는 카타르로부터 전면적으로 LNG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 준해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체 도입선 및 수급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장기 물량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지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카타르 LNG가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상 3~5년은 트레이드와 대체물량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글로벌 LNG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실장은 “LNG의 경우 그동안 구매

자 중심의 시장이 유지됐지만 이번 사태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고 가격도 요동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스발전요금이 상승하고 전력요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를 통해 공급하는 난방비도 하반기 이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카타르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LNG를 액화하는 주요설비 17개 중 2기가 타격을 받아 수출용 LNG 생산시설 17%가 손상을 입었다며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연간 610만톤 수

준의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LNG 수입 물량의 15% 수준이다. 양 실장은 미국의 제재 유예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납사 도입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으로부터 러시아 원유는 달

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UAE 디르함화 등 다른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2차 제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아직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실장은 “도입하려는 러시아 원유가 해상에 떠 있는 물량이라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미국이 이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한달을 줬는데 정유사들은 한달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다만 “러시아산 납사(나프타)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상하이 운임지수 기준 중동 노선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3월 1일~20일 기준 수출은 중동으로의 수출이 큰 폭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은 50%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신현송의 첫 과제는 ‘균형’ 환율·집값·부채 동시관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물가·성장·금융안정의 줄타기
금리보다 어려운 복합리스크
원화 약세·집값 불안의 시험대



두번째 과제는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다. 한은은 2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금융안정 유의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를 별도로 적시했다. 실제 2025년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늘었고, 이 중 가계대출은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시장도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2026년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이 0.28%였지만 서울은 0.7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 여지를 열어두더라도,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다시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은 시작부터 자산가격과 부채의 제약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번째 과제는 숫자상 반등과 체감의 괴리가 큰 경기다. 한은은 2025년 성장률을 1.0%로 집계했고, 올해 성장률은 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2월 총재 기자회견담회에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비IT 부문 성장률은 1.4%로 이전 전망과 같아 IT와 비IT 부문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생의 **꿈** 교사의 **능치** 부모의 **신뢰**

"기초가 탄탄해야 배움이 성장합니다"

서울형 기초학력



교실 안 수업 중에 바로 잡아주는 **충분한 배움**

AI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

협력강사 밀착 지원 수업 중 발생하는 학습 결손 예방

학교 안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

'키다리샘'이 소규모 통합 지원 심리·정서적 상담, 문화예술 활동, 진로 체험

심층진단 집중학년제 운영 난독(초1) 난산(초3)-경계선지능(중1,고1)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한 **원스톱(One-stop) 케어**

서울학습진단 성장센터 운영 11개 지역 센터에서 학습 저해 요인 진단·지원

학습성장 네트워크 구성 대학 및 전문기관 협력, 내실 있는 진단·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